

## 서양 건축미 개념의 역사적 전개 연구

\_ 아네르 테트라고노스와 아르카디아

A Study on Historical Development of Western Architectural Beauty Concept

\_ aner tetragonos(άνηρ τετράγωνος) and Arkadia

글. 최동호 Choi, Dong-ho · KIRA | 건축사사무소 마당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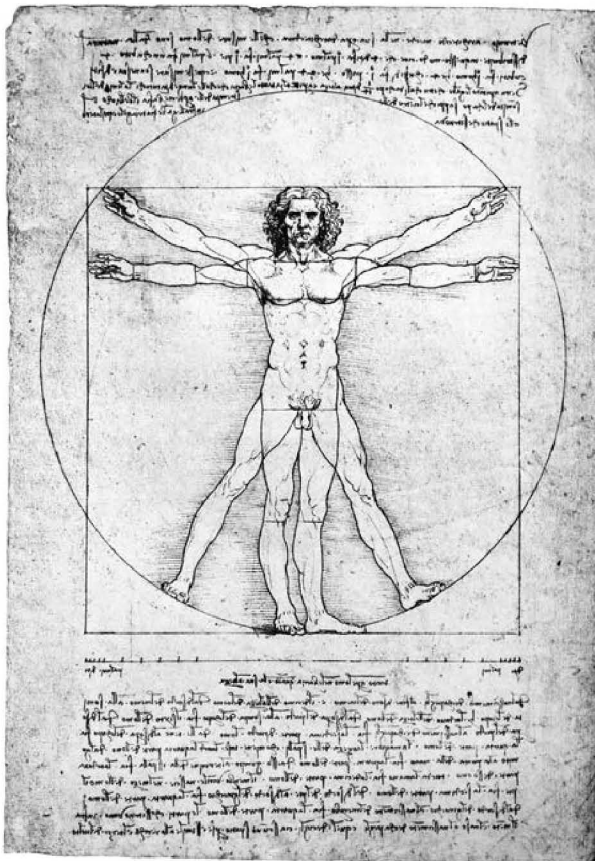
본 논문은 브와디스와프 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kiewicz, 1886-1980)의 주저인 『미학사』 I, II, III을 통하여 ‘건축미’ 개념의 의미를 가능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사상적 핵심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있으며, 2016년도에 본인이 박사논문으로서 제출한 제목이다. 이 연구는 또한 ‘아네르 테트라고노스’와 ‘아르카디아’를 아름다운 건축의 참된 사상적 지향점으로서 그 내용을 밝히는 데로 귀결될 것이다.

건축은 구성적 예술의 기본이었다. 신전 건축에 있어서 조각과 회화는 건축을 완성시키는 요소들이었다. 구성적 예술은 건축, 조각, 회화를 포함한다. 플라톤이 생각한 미의 본질은 적도, 비례, 질서, 조화(협화)에 있었다. 대표적인 신전 건축으로서 파르테논은 카논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엔타시스와 기단의 착각보정 설계를 볼 수 있었다.

중세미학에서 성당건축의 고딕은 신의 영광의 빛이라는 의미로서 정의했고, 로마네스크는 기하학적 규칙이라는 단순성에 의한 형식들을 채택했고, 벽의 육중함과 표면에서 거칠음의 미학을 찾아내었다.

르네상스의 콰트로첸토는 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대 그리스의 개념과는 다르게 변화했다. 그리스 시대에는 건축이 공간을 둘러싸는 것이지만 이제는 표면을 꾸미고 벽을 장식하는 개념이 되었다. 또한 16세기의 고전적 르네상스 예술의 특징은 웅대함, 조화, 균형 등으로 말할 수 있다.

팔라디오가 설계한 빌라 로토나는 순수기하학적 미의 완벽한 비례미의 원리를 보여주며 그 대칭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르네상스의 최정점의 건축으로서 정사각형이 갖는 우주의 상징성과 원형의 완결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빌라 건축은 그 당시 이상향의 목가적 개념으로서 최고의 자연 환경을 소유하면서 전원생활의 문화인 ‘빌레지아투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평정의 쾌락을 창조하고 인간과 자연의 혼연일치의 경지를 가져다주는 이상적



Leonardo da Vinci, Vitruvian Man, c. 1490

인 빌라 건축으로서 ‘건축을 자연화’한 건축미 개념이다.

건축미학 중심 개념으로서의 ‘아네르 테트라 고노스’에서 정사각형 인체의 인간이라는 개념은 ‘원과 네모’라는 우주의 기하학적 원상 속에서부터 완성된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된 도형이다.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인간을 “그대 정신의 의사에 따라서는 ‘신적’이라 할 상위 존재로 재생시킬 수도 있으리라”라고 쓰고 있다. 비트루비우스는 ‘사각형의 인간’(호모 콰드라투스)은 신의 형상으로 도달하게 되는 정신적 소우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였다. 마크로비우스는 “세계는 크게 나타난 인간이고 인간은 작게 나타난 세계다”라고 쓴바 있고, 또한 로마초도 소우주와 대우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인간의 신체를 소우주라고 불렀다.

자유로운 신과 같은 피조물로서, 모든 것의 원천으로 완결된 인간 형식의 유비적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